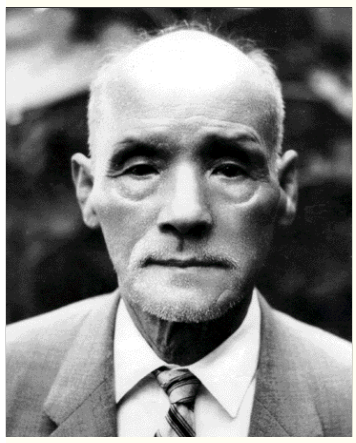
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6】

冬土 모스크바에서의 결혼



▲ 78세시의 김시현. 1960년 부산형무소에서 출감했을 때의 모습이다.

극동 약소민족대회는 1922년 1월 21일에 모스크바의 크레믈린궁에서 개회되었다. 소련 이외의 극동지역 참가자는 한국을 비롯한 9개의 국가나 민족으로서 144명인데 그 중에 한국 대표가 5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중국이 42명, 일본이 16명 순이었다. 그 의장단에도 중국、일본、몽고와 함께 2명씩을 배정받아 한국인으로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이 포함되었다. 이 모임은 약소민족 대표의 대회라고 하지만 주로 공산주의자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표는 대개 공산당원의 신분을 띠었다. 권애라도 실제로는 상해 애국부인회 대표였으나 겉으로는 고려공산당 상해지부 대표로 위장되어 있었다는 설이 있다.

회의는 2월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되고 숙소는 소비에트 제3관 또는 X요양원療養院이라는 곳이었다. 1월 21일에 크레믈린궁에서 개회되어 계속된 회의는 2월 2일에 대회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리는 회의는 페테르부르크의 우리츠키궁에서 열렸다. 폐막 후 대표들은 속속 소련을 출발하였고 대개 3월 중순에 본래 활동하던 곳으로 귀환하였다. 그런데 권애라는 모스크바에서의 대회 기간에 그 평생의 반려 김시현金始顯의 구애를 받아 결혼하게 된다.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 한국 대표 56인 중 여자는 4인이었다. 대회는 막간에 여흥으로서 오락회를 열어 각국의 대표 중 예능인이 나와 무대에서 장기를 자랑하게 되었다. 손짓 발짓으로 일인극을 펼치는가 하면 궁둥이춤 따위 무용을 선보이고 목청껏 자국 민요를 부르기도 하였다. 여기에 한국 대표로 권애라가 뽑혀 나갔다. 묘령의 미모에 모두가 깜짝 놀랄 미성美聲으로 권애라는 그 특기인 개성 난봉가의 박연폭포를 불렀다. 가사의 뜻은 모르지만 그 빼어난 열창에 만장의 각국 대표들이 열광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여기에서 권애라는 단연 프리마돈나와 같은 히로인으로 돋보여 시선을 한몸에 모았다. 이때 권애라에게 가장 뜨거운 시선을 보내며 반한 사람이 한국 대표 일행 중의 독신자 하구何求 김시현이었다. 이를 계기로 권애라는 동토의 이역 모스크바에서 김시현의 구애를 받아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 대목을 이종률은 ‘ 김시현선생과 그 영부인의 전기 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오락회가 있어 얼마 지난 뒤였다. 회의를 마친 뒤 권애라양을 대하는 하구 김선생의 눈길은 몹시 은근했다.

“ 수고하십니다. ”

“ 천만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

“ 고향이 어디십니까? ”

“ 개성서 성장했습니다. ”

“ 그래서 개성 난봉가 박연폭포를 잘 부르시는군요. ”

이때 김선생의 입술에는 가벼운 웃음이 흘렀다.

“ 여기서 부르는 박연폭포는 개성 난봉가가 아니지요. ”

“ 무슨 말씀입니까? ”

“ 조국을 떨어져 만여리, 여기에 무슨 개성이 있고 기호畿湖가 있겠습니까. 오직 조국이 있을 뿐이지요. 노래 박연폭포는 조국의 노래, 조국의 난봉가, 그 정서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

그리고 또 권양은 말을 잇는다.

“ 선생의 고향은 어디세요? ”

“ 경상도 안동입니다. ”

“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있고 낙동강이 흐르는 좋은 곳이로군요. ”

“ 좋은 곳이지요. ”

대답을 한 김선생은 거기서 말머리를 돌렸다.

“ 양은 공산주의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

“ 저는 나이 어려 잘 알지는 못하지마는 공산주의는 이해할 수 없어요. ”

“ 좋습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의 기치를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더 훨씬 깨닫게 되겠지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든 민족주의라야 합니다. ”

그리고 또 김선생은 말을 이었다.

“ 양은 민족주의 사상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

“ 배우다니요. 우리의 민족주의는 생활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희망을 지니고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

“ 좋습니다. 우리의 민족주의 투쟁은 밖으로부터 배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감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양은 실로 학력이 높습니다. 공부는 어디서 했습니까? ”

“ 어릴 땐 아버지께 한문을 배우고 그 뒤에 개성 호수돈여학교와 이화학당에서 배우고 현재에는 중국 소주蘇州에 있는 경해의숙景海義塾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

“ 좋습니다. 그럼 학생 대표로 참석했습니까? ”

“ 아니에요. 상해에 있는 우리 애국부인회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선생은요? ”

“ 만주에 있는 군정서軍政署의 대표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앞으로 지도를 바랍니다. ”

“ 아니올시다. 저야말로 지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이런 문답이 계속되는 동안 권양과 함께 상해에서 우리 애국부인회 대표로 동행 참석한 김양金孃[名未詳]은 기다리다 못해 그들의 숙소인 X요양원으로 가 버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서 크렘린궁전의 회의장과 뜰에는 우리 한국인으로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필연이랄까, 부득불이라고 할까. 김、권 한 쌍의 남녀는 어깨를 가까이하여 그 뜰을 걸어나오게 되었다. 밀크홀 한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두 사람은 어째서인지 쉽사리 작별하지 못했다. 다정스럽게 간간이 농을 터뜨려 남자로서의 호방한 면을 보이고 있는 김선생을 권양은 스승을 대하듯, 맏오빠를 모신듯, 또는 언약 이전의 애인을 대한듯 믿음직하고 기분이 흐뭇하여 일생을 통하여 공사간의 지도를 받고만 싶었다. 뿐이랴, 하구 김선생에게 있어서의 권양도 애지중지하고만 싶었다.

전일 오락회장에서도 느낀 바 있거니와 미모와 미성의 소유자이며 또 그것보다도 각국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늠름하고 자약하게 우리 조국의 딸됨이 자랑인 양 개성 난봉가를 불러 만장을 도취케 한 그 조건 등이 우수하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오늘의 사귐에서 발견하게 된 바 학력의 낮지 아니함, 판단력의 저속하지 아니함, 민족주의자로서의 사상의 일치성 등 실로 만족하게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하구 김선생은 당년 40, 권양은 방년 26, 한쪽에 인간으로서의, 또 혁명가로서의 원숙성이 보인다면 다른 한쪽에는 인간으로서의, 또 혁명가로서의 솔직성과 대담성과, 그리고 아울러 정서면이 보인다 하겠고 거기서 김선생은 양을 자기의 믿음직한, 또는 장래가 촉망되는 동지의 한 사람이면서 가족적으로의 누이동생인듯, 아내 아닌 애인인듯 분간키 어려운 심경이 운거운래雲去雲來, 가슴이 설레게 했다.

밀크홀을 나와 각기 숙소로 돌아가게 된 권、김 두 분은 모두 그날 밤 잠을 전일과 같이 자지 못했다.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게 하는 두 분의 가슴속에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미해未解의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떠돌기만 했다. 이역만리에서 만나게 된 회심의 이성 동지를 서로 못잊어하는, 또는 서로 관심 가져보게 되는 데서 그러했을 것이다.

그 익일은 회의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나 그저 평범한 인사만을 하게 되고 특별히 말하지는 아니했다. 무슨 까닭인지 서로 어색해진 마음의 작용이 오히려 서로 모르는 체하고만 싶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날이다. 만리천애萬里天涯에도 달은 달려 있고 혁명가인, 아니 혁명이기 때문이라 할까. 권、김 두 분의 눈에도 달빛은 유심하게 보였다. 그 권양의 숙소인 X요양원 앞길을 걷는 권、김 두 분의 뒤에는 달빛에서 오는 그림자만이 있었고 환경은 고요했다. 어느 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는 모르지만 권양의 왼손과 김선생의 오른손은 꼭 쥐어져 있었고 그리하여 거니는 두 분의 입엔 아무 장식도 서열도 없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다.

“ 이곳 하늘에도 달빛은 밝군요. ”

“ 흥분스럽게 보이는 구석은 없습니까? ”

“ 분석해서 말하자면 혀로도 붓으로도 형용할 수 없지요. 오직 하루 바삐 독립된 조국에 돌아가서 선생과 함께 저 달빛을 봤으면 하는 것 뿐입니다. ”

두 남녀는 함께 아무말이 없이 얼마 동안 걸었다.

“ 권양! ”

“ 예. ”

불러 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김선생은 신조를 피력하는 듯한 어조를 가다듬어 말했다.

“ 저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

권양은 쥐었던 손을 풀어 김선생의 손은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자기의 손은 자기에게로 가져왔다. 그러나 어깨는 역시 김선생의 어깨에 닿인 채 아무 말 없이 몇 걸음 더 걷다가 입을 열었다.

“ 제가 직업적 혁명가이신 선생의 아내로 될 수 있을까요? ”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야말로 양의 남편될 자격자가 못되지요. ”

하구 김선생은 걷던 걸음을 멈추고 오른편으로 돌아서서 권양의 풀어버린 손을 다시 꼭 잡았다. 더 거닐지 않고 그 길뚝 한 모퉁이에 자리잡고 앉은 두 분은 백년의 부부를 약속하는, 또 백년의 동지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며칠 뒤 신랑 김시현군과 신부 권애라양은 동지들이 모인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이 선포가 있게 되자 축의를 표하는 박수가 있고 환호가 있고 했다. 경상도

▲ 김시현의 생가 종택.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대황산 아래에 있다.